

제5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성과보고

사회적 가치를 말하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 황예슬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지원2팀 연구원
✉ hyesyes@klri.re.kr



I. 행사 개최 배경 및 목적

2020년 6월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법제화에 관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학계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혁신성장지원법제-사회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8월 21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제5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지난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¹⁾ 이번 제5차 포럼에서는 특히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의 대담을 시작으로 법학, 경제학, 민간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가치 개념과 정량화 등 사회적 가치 법제화 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은 COVID-19 재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II. 포럼의 주요 대담 내용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는 제5차 포럼의 주요 대담자로서 ① 경제학에서 바라본 사회적 가치 접근, ② 사회적가치 의사결정기구 필요성, ③ 현 생활과 밀접·절박한 사회적 가치 우선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홍기빈 공동대표는 오스트리아, 신고전, 제도주의 학파 등 시대별 경제학파들의 사회적 가치 접근방식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경제학에서 200년 전부터 논의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필요의 범위가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되고,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같은 개념이 등장 함에 따라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²⁾과 관련하여 홍기빈 공동대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대립은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의 및 합의

1) 제1차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의 구현-공공기관을 중심으로(19.09.19)
제2차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19.10.02)
제3차 조세법제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19.10.17)
제4차 사회적 가치 정량화와 평가 방법론(20.05.21)
2)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의원 등 16인 발의, 의안번호 2100001

를 유도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찬반 이슈, 여성인권, 환경 중 어느 사회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지 등과 같은 난제에 대한 결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타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숙의하고 합의하며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흥기빈 공동대표는 사회적 가치 공론화를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거대한 담론보다 현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긴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현재 COVID-19 상황에서 긴급한 고용 및 일자리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우선으로 해결하고, 이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던 큰 혼란없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특정 주체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공통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적 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섹터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정량화 기준이 구축되어야 그 분류에 따라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II. 그에 따른 다양한 논의

흥기빈 공동대표의 대답에 이어 온-오프라인으로 패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의 사회로 원내 나채준 연구위원, 송영선 전문위원, 원외 송기춘 교수(전북대), 이상수 교수(서강대), 이계수 교수(건국대), 이국운 교수(한동대),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김정욱 센터장(KDI), 길현중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강성일 팀장(신용보증기금),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 이은선 교수(경남과기대), 박지훈 팀장(아산나눔재단), 김영하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민석 연구위원(PSR 공공기관 사회적책임연구), 손은영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 현 연구위원(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현재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한계, 「공

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학, 경제학, 민간 실무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사회적 가치 계량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숫자는 바로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는 '언어'라고 비유하는 한편, 대중들에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유 확산을 위해 계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헌법에 명시된 특정 가치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의 내용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사회적 가치 공론화를 위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한 내면화 과정이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이은선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주체별 배경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있는 사회적 가치 항목 중, 불분명한 내용은 전 세계 공동목표인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내 169개 세부지표를 참고해 수정 및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박지훈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사회적 가치는 결국 측정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활동의 지속성과 연결되므로, 사회적 가치 법제화 진행 시 반드시 참여 이해관계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체계 필요함을 강조했다.

길현중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등 측정 주체가 다양하고 측정 목적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서의 '사회' 개념을 '국가'와 등치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법제화에 대해 현행 헌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일자리, 고용 등 이미 지표별 측정 중인 영향평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V. 시사점 및 기대효과

'사회적 가치 실현'은 COVID-19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의 논의를 넘어서서 사회·경제·문화·환경의 통합적 발전과 생태계의 질적 전환 모색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더욱 밀접한 현안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오랜 시간 연구와 실무를 해온 법제 전문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한층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사회적 가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법률안의 한계를 극복한 후속 법안의 입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본 행사까지 총 5회에 걸친 포럼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량화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